



Gimpo-City Council

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

# 《 제221회 정례회 》 개 회 사



김 포 시 의 회

## 【 개 회 사 】

○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!

동료 의원 여러분과

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1,800여 공직자 여러분!

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!

○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‘입동’과 첫눈이 내린다는 ‘소설’도 지났습니다.

○ 일교차가 심한 요즘

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

○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!

그리고 공직자 여러분!

○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 김포시의회 정례회가 연이어서 개최됩니다.

○ 각종 지역현안을 챙기면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에 진입한 우리 김포시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팽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.

- 특히 지난 11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김포시, 서울시, 서울시 강서구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,
- 정부도 지자체간 5호선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시의회도 이를 환영하며,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서울 5호선이 연장되면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,
- 4만 6천 호 규모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면 한강시내폴리스,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함께 김포시가 70만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.
- 다만, 서울 5호선 연장이 확정되고, 착공, 개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
- 5호선 연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집행기관에서는 5호선 연장 사업을 위한 제반사항을 더욱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의회 역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지난 8일에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퇴근시간대에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해봤습니다.
-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 수송력의 한계로 출·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.
- 2021년 철도통계에 따르면  
출근시간대 김포골드라인 ‘고촌~김포공항’ 구간 혼잡도는 지옥철이라는 오명의 지하철 9호선 ‘노량진~동작’ 구간보다도 약 60% 높은 241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
- 차량 증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해소할 대책이 절실하며, 이는 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.
-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버스 추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 
김포골드라인 혼잡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 
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
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- 그리고, 오늘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.
- 내년도 김포시 살림살이 규모는 모두 1조 6천 1백억 원 정도가 됩니다.
-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.
- 각 분야별 방대한 사업들을 살펴보고  
허투루 쓰는 예산은 없는지,  
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 
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.
- 의원님들께는 본예산 심사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책임감 있는  
자세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,
- 집행기관에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 
당부드립니다.
- 또한,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,  
주요 사업 중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 
정책방향이 변경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 
전에 먼저 시의회와 소통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
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겨울의 시작입니다.

모든 시민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설대책과 취약계층 월동대책 등 겨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

○ 김포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○ 김포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